

11. 오늘날의 분재 마을(분재 마을이란)

오미야 분재 마을은 창립 이래 거의 1 세기 동안 장인들의 생각을 계속 실현해 왔습니다. 분재 재배에 적합한 광활한 산림지대를 발견해 온화하고, 여유로운 독자적인 모습으로 일본 분재 문화의 주요 거점으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7 곳의 분재원과 대부분의 재배장은 2 대, 3 대, 4 대, 나아가서는 5 대째 장인이 이어받아 일본 국내 유수의 분재를 육성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배장에서는 또한, 소유자를 대신해 소중한 분재를 돌보고, 전통을 지키면서 분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매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재 애호가와 초보자를 위해 교실을 열고 분재의 훌륭함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재원은 각 정원에서 도보권 내에 있으며, 도로역(JR 우쓰노미야선) 또는 오미야코엔역(도부 노다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분재원에서는 소형 분재부터 대형 분재까지 다채로운 종류와 디자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분재 애호가들은, 오미야 분재원에는 각각 독자적인 양식과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다양성은 각 분재원이 펼친 선의의 경쟁이 있었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요엔(芙蓉園)은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잡목 분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분재원 중 2 번째로 역사가 긴 규카엔(九霞園)은 분재 도구 제작원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분재는 부유한 상류층의 취미라는 이미지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수많은 저명한 정치인들이 분재를 좋아했던 걸 생각하면 무리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미야 분재 마을에서는 1,000 엔이라는 저렴한 예산으로도 분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원 외에 지역의 분재 관련 관광명소에는 스터디 모임과, 휴식에 이용할 수 있는 분재 사계의 집(사계절을 즐기는 분재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시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분재 정원의 아름다움을 실감하실 수 있는 오미야 분재 미술관이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명품 분재를 비롯해 100 점 이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5 월이 되면 ‘대 분재 축제’가 개최되는데,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많은 분재 애호가 오미야 분재 마을에 모입니다.

그 외 인근에서 볼만한 곳은 오미야 분재 마을 설립의 주요 인물이었던 시미즈 리타로(清水利太郎, 1874~1955)의 비석이 있는 우에타케 이나리 신사(植竹稻荷社)와, 만화가 기타자와 라쿠텐(北澤楽天, 1876~1955) 씨의 옛 아틀리에에 세워진 만화회관입니다.

오미야 분재 마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과 현재 직면한 과제는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와 유사합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전에는 35 곳 정도의 분재원이 있었지만 전시 중에 대부분이 폐쇄되었습니다. 전후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분재 장인들도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21 세기에 이르러 경제와 인구의 감퇴가 분재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분재 애호가의 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야의 분재 장인들은 분재를 사랑하며, 대대로 이어온 오랜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미야의 분재 장인에게 분재는 애정을 쏟는 대상입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원예 예술에 활력과 높은 관심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